

만세전

1. 작품 분석
2. In 기출, ebs

만세전 전문 장면별 분석

①

1. 주인공의 상황 설명

- 주인공은 일본 동경의 대학생이며,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급히 귀국해야 하는 상황임
- 아내가 죽어가는 상황에 대해 별다른 감정이 없어 자신의 무심함에 의문을 품음

2. 술집 장면

- 주인공은 정자, P자라는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냄
- 부부간의 사랑, 믿음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방탕한 발언을 서슴지 않음

3. 거리 산책 장면

- 거리를 배회하며 자신의 내면에 대해 깊이 생각함
- 인간의 위선, 가식, 겉치레에 대해 반성하고 자유로운 삶에 대한 열망을 드러냄

4. 열차 역 장면

- 정자를 우연히 만나고, 그가 보낸 선물을 받음
- 정자와 작별인사를 나누며, 정자는 주인공을 따라가고 싶어 함

②

1. 기차 안 장면 (주인공, 정자)

- 주인공이 기차 안에서 정자에게 받은 편지를 읽고 심경의 변화를 보임
- 정자에 대한 미련과 함께 그녀의 처지에 동정심을 느끼고 있음
- 정자에 대한 호의적 시선과 함께 연애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드러냄

2. 카페 여종업원 정사 소식 장면

- 과거 만났던 카페 여종업원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악
- 여종업원의 삶과 최후를 통해 당시 여성의 삶의 굴곡을 엿볼 수 있음
- 주인공 내면의 여성에 대한 동정과 방향이 교차

3. 을라를 만난 장면 (주인공, 을라)

- 중학 동창 을라를 만나 과거를 회상하며 을라의 변화에 의아해함
- 을라가 주인공을 붙잡고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주인공은 거리를 두려함
- 을라에 대한 애정과 의혹이 교차하며 관계 정립에 혼란을 보임

4. 병화 이야기 나온 장면

- 을라의 지인 병화 이야기가 나오자 주인공과 을라 모두 분위기가 어색해짐
- 병화와 을라의 친분 관계에 대한 오해와 의혹이 주인공에게 있었음을 암시

5. 작별 장면 (주인공, 올라)

- 주인공이 올라와 작별인사를 나누며 악수를 청함
- 올라의 주저하는 모습에서 여전히 주인공에게 애정이 남아있음을 느낌
- 주인공 역시 올라의 따뜻한 체온에 전에 없던 심정의 동요를 보임

③

1. 배 안 장면 (주인공, 노동자 모집원들, 목욕객들)

- 주인공이 목욕탕에서 노동자 모집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면서 조선 농민들의 참혹한 현실을 알게 된다.
- 노동자 모집원들의 잔인하고 비열한 모습, 조선인을 착취하는 태도가 드러난다.
- 주인공은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느끼며 민족의 비극적 현실에 대해 자각하게 된다.

2. 짐 조사 장면 (주인공, 경찰/형사들)

- 경찰들이 주인공의 짐을 조사하며 의심하고 체포 의혹을 갖는다.
- 주인공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만 침착하게 대응한다.
- 조선인으로서 차별과 학대받는 모습이 드러나 주인공의 분노와 울분을 자아낸다.

3. 배 출발 장면 (주인공)

- 주인공은 배에 성공적으로 오르지만 모욕적 경험으로 인해 상처받은 자존심으로 괴로워한다.
- 바다와 어둠 속에서 고향과 민족에 대한 그리움과 연민의 감정이 교차한다.
- 눈물을 흘리며 민족의 비극적 현실에 대한 반성과 각성을 겪게 된다.

4. 내적 독백 장면 (주인공)

- 주인공의 내면 독백을 통해 민족의식 성장과 현실 인식의 계기가 보여진다.
- 과거 학문과 이상주의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번 현실 체험을 계기로 민족의식이 싹튼 모습이다.
- 앞으로 민족의 현실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.

④

1. 선실 내 아침밥 시간 (화자, 다른 승객들)

- 화자는 아침밥을 먹으러 갔지만, 다른 승객들이 밥상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자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.
- 한 승객이 선원에게 건방진 태도로 대하자, 다른 승객들은 그를 비난하며 반발했다.
- 화자는 그들의 행동이 비천해 보이고 마음에 꺼림칙했지만, 배가 고파 어쩔 수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.

2. 배에서 내리는 장면 (화자, 일본인 형사, 조선인 헌병)

- 화자는 배에서 내릴 때 무슨 죄라도 진 듯 겁이 났다.
- 일본인 형사가 화자를 불러세워 호출하자, 화자는 두려움에 휩싸였다.
- 조선인 헌병들이 화자를 주시하자, 화자는 일본인으로 보이길 바랐다.

3.형사 조사 장면 (화자, 일본인 형사)

- 화자는 형사 조사를 받으며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였다.
- 일본인 형사에게 통명스럽게 대할 수 없어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졌다.
- 형사의 심문은 간단했고, 화자의 짐을 열어보지 않고 가버렸다.

5

1. 거리 풍경 장면 (화자, 조선인들)

- 화자는 부산 거리를 걸으며 조선인들이 점점 밀려나가는 모습을 목격한다. 그들의 삶의 터전이 빼앗기고 쫓겨나는 비극적 상황을 통렬히 인식한다.
- 조선인들은 서서히 주거지를 내어주며 밀려나가지만, 그 사실을 새삼스레 인지하지 못하고 체념하는 모습을 보인다. 구차한 생활 방식과 무기력한 삶의 자세가 암시된다.

2. 여인숙 장면 (화자, 일본인 주인, 조선인 계집아이)

- 화자는 호기심에 여인숙에 들어가 목격한 일본인 주인과 조선인 계집아이들의 모습에 불쾌감을 느낀다.
- 일본인 주인은 조선인 계집아이들을 착취하고 있으며, 그들의 처량한 운명에 무관심하다.
- 조선인 계집아이는 일본인 아버지를 두고 있으며, 어머니를 버리고 더 나은 삶을 찾아 방황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. 비극적 운명을 자조하는 심리가 드러난다.

3. 기차 장면 (화자, 형사)

- 화자는 여인숙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으로 인해 급히 기차를 타러 가지만, 형사에게 수상한 시선을 받는다.
- 형사는 화자의 행적을 의심스럽게 여기며 주시하고 있다. 이는 당시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감시의 상황을 보여준다.

6

1. 김천역 마중 장면 (주인공, 형님)

- 기차가 김천역에 도착하자 형님이 금테모자와 망토를 두르고 주인공을 마중나옴
- 주인공은 형님의 반가운 인사에 허둥지둥 내린 후 함께 집으로 향함

2. 형님 집 도착 장면 (주인공, 형님, 큰형수, 작은형수)

- 형님의 큰형수와 작은형수를 처음 대면

- 작은형수가 최참봉의 둘째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

3. 산소 문제 논의 장면 (주인공, 형님)

- 종형이 위조해 산소 문서를 팔아먹은 일로 형님과 논쟁
- 조상 산소 처리 문제를 두고 서로 갈등

4. 정거장 모습 장면 (주인공, 형님, 역부들)

- 눈보라 치는 겨울 밤, 역부들이 신호등 점화 작업하는 모습 목격
- 힘든 역부들의 모습에 주인공이 동정심 표현

5. 기차 안 풍경 장면 (주인공, 갓장수, 헌병보조원)

- 석유불이 켜진 낮고 좁은 기차 안
- 주인공과 담배 피우며 대화 나누는 갓장수
- 주인공이 당시 민족의 처지에 대해 토로하자 갓장수는 점잖지 못하다며 반박
- 헌병보조원 갓장수를 연행하려 하자 공포 분위기 조성
- 갓장수의 우산만 남겨져 있음

6. 대전역 풍경 장면 (주인공, 수감자들, 순사들)

- 눈이 쌓인 차가운 대전역 플랫폼
- 포승을 찬 수감자들이 의자에 꿰어앉아 있음
- 젊은 여성 수감자가 업고 있는 아이 보채자 서성거림
- 여성 수감자의 처량한 모습에 주인공 가슴 아픔
- 순사들이 꼼짝 않고 수감자들 지키는 모습

7. 서울역 풍경 장면 (주인공, 기생)

- 서울역 도착하자 주인공이 짐 꾸리는 중
- 기생이 어리둥절해 하며 주인공을 빤히 쳐다봄
- 주인공은 제복 단정히 하고 기생을 외면
- 기차에서 내린 기생이 길 잃은 아이같이 서성거림
- 주인공 형님이 기생의 처량한 모습 목격

㉑

1. 눈 내린 서울 풍경 장면 (주인공, 인력거꾼)

- 길에 쌓인 눈을 힘겹게 헤치며 인력거꾼이 바퀴를 구르고 있음
- 바람과 추위에 주인공의 코끝과 눈이 얼어붙을 지경
- 거리에는 사람 자취가 거의 없는 적막한 분위기
- 주인공은 반가운 듯 서울 시가를 둘러보며 아내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 아파함

2. 아내 병문안 장면 (주인공, 아내, 가족들)

- 주인공 가족들이 아내의 병세를 염려하며 기다리고 있음
- 아내는 혼수상태에 있으며 초췌한 모습으로 주인공을 바라봄
- 아내는 자식 걱정만 하며 곧 죽게 될 것 같다고 말함
- 주인공은 아내의 초라해진 모습에 가슴 아파하며 무력감을 느낌

3. 김의관 등장 장면 (주인공, 김의관, 아버지)

- 김의관이 주인공의 집에 와 있어 주인공이 의아해 함
- 아버지는 김의관을 매우 존경하며 그의 말을 무조건 따름
- 주인공은 김의관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며 그를 반기지 않음
- 누이는 김의관이 유치장에 갔다가 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웃음거리가 됨

4. 아기 모습 장면 (주인공, 어머니, 아기)

- 어머니가 양상한 얼굴의 아기를 안고와 주인공에게 보여줌
- 아기는 추워 떨리며 울부짖어 주인공이 싫은 기색을 내보임
- 어머니는 아기가 주인공을 닮아 예쁘다고 하지만 주인공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
- 누이는 아기 울음소리에 짜증 내며 방을 나감

㉘

1. 병인 구완하는 가정 장면 (화자, 어머니, 큰집형, 큰집형수, 병화)

- 작가는 병인을 구완하는 장면을 통해 당시 조선 사회의 풍속을 그려냄
- 어머니는 병환 중인 며느리를 구완하기 위해 애쓰지만 지쳐가는 모습
- 큰집형은 베푸는 자세 대신 술로 세월을 보내며 현실을 잊으려 함
- 큰집형수는 동생 병환에 관심은 있지만 수수방관하는 태도
- 병화는 화자의 친구이자 형수의 동생이지만 가족 간 갈등 회피

2. 동우회와 김의관 얘기하는 장면 (화자, 큰집형, 어머니)

- 동우회를 통해 당시 일선인 동화정책과 귀족들의 허위의식 드러냄
- 큰집형은 김의관이 동우회에 가입해 술로 때를 보내는 것을 비판
- 어머니는 김의관이 아들의 병구완에 관심 없음을 원망

- 화자는 술과 동우회가 당대 지식인의 현실 도피 수단임을 지적

3. 올라와 병화 내외 만나는 장면 (화자, 올라, 병화, 병화의 아내)

- 올라와 화자의 관계에 병화 내외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임
- 병화 내외는 화자와 올라의 관계를 불편해하며 거리를 둠
- 화자는 올라와 병화 내외 사이의 오해와 갈등 상황을 포착

㉠

1. 병인의 임종 장면 (나, 병인, 어머니, 식구들)

- 병인이 임종 직전, 호흡이 가빠지며 죽음에 임박해감
- 나는 병인 곁에서 미음을 떠넣어주며 마지막 모습을 지켜봄
- 어머니는 염주를 돌리며 기도하고, 다른 식구들은 숙연한 분위기
- 나는 병인의 마지막 눈빛과 웃음에서 평화로운 모습을 발견하며 안도함
- 병인이 숨을 거두자 어머니는 슬퍼하지만, 나는 별다른 감정 없이 차분함

2. 정자의 편지와 반응 (나, 정자)

- 정자가 보내온 편지에서 자신의 방황과 새 출발에 대한 희망을 피력함
- 나를 만나 인생에 깨달음을 얻었다며 고마움을 표시
- 하지만 나는 오히려 정자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듦
- 정자의 편지에 감동하면서도 자유분방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함
- 정자가 동경에 들르기를 원하지만 거절하고 돈만 부침으로써 관계 정리

3. 여자들과의 대화 (나, 올라, 병화)

- 올라와 병화가 나를 위로하려 옴
- 올라는 다음 장가 갈 것을 빈정대며 나의 반응을 살핌
- 나는 아내 죽음에 대해 무덤덤한 모습을 보이며 올라의 뜻을 알아차림
- 병화 또한 자신의 집으로 나를 부르며 올라와 함께 작당한 듯
- 나는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오히려 우스운 심정이 듦

4. 큰형님과의 대화 (나, 큰형님)

- 큰형님이 어떻게 살아갈지 문자 나는 흥가분함을 느낌
- 자녀들의 양육비를 형님들과 상의하고 걱정 없이 떠날 작정
- 앞으로 누구와 결혼할지에 대한 생각도 하지만 가볍게 여김
- 큰형님이 다음에 속현할 생각이냐고 문자 봄이 와서 생각하겠다며 농담